



■ 원로와의 대담

전 서울대 가정대학장 玄己順 선생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단아한 차림에 인자하신 모습을 대하니 매우 기쁩니다. 선생님께서도 역시 어려운 시절, 당시로서는 드물게 외국유학까지 다녀오신 개화된 신여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36년 경기여자고보 졸업

1919년에 서울 종로구 청진동 71번지에서 9남매의 대가족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개화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머님께서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자랑 같지만 9남매중 4명의 형제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6년제 수송국민학교를 32년에 졸업했는데 당시 남학생과 여학생

이 각각 60명씩 두반이었고 여학생중 학업을 계속한 친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32년에 경성여자고보(현 경기여고)에 입학하여 36년에 졸업했는데 당시 김삼순선생님이 근무하셨어요. 김삼순선생님께서 작년에 「과학과 기술」지의 원로와의 대담에 나오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한국여성계에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경기여고 출신으로 그 당시와 오늘날의 모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60년전 동창 요즘도 만나

경기여고보 26회 출신으로 1백36명

“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땃땃하게 늙은 餘生보내야 ”

졸업생중 요새도 한달에 한번씩 20여명이 모임을 갖습니다. 대화 내용이라야 세상사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요. 그리고 재학시절 일본으로 수학여행 다녀온 이야기, 옛날 일본 와꾸(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운 옛일들도 회상하지요.

당시 경기여고보에 한국인 교사는 5명 정도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일본인 교사들이었어요. 특히 고모도(高本) 교장선생님은 매우 인자하시고 교육열이 강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들을 조선인이라고 경멸하거나 특별히 차별대우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잘 교육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무언중에 교육 받

은게 바로 '시간약속은 지킬 것', '노트 정리를 세밀하게 하는 것' 등이었어요. 지금도 경기여고 졸업생들이 사무적으로 틀림없는 것이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이어오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경기여고보를 졸업하신 다음 사범학교를 거쳐 국민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세때 국교교사로 부임



◇영양학에 바탕을 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기순선생(左)이 박택규본지 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36년에 졸업한 다음 경성여자 사범학교 강습과에 진학, 1년간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이 학교를 37년에 졸업하고 처음 충북 무기공업보통학교에 부임하여 3학년을 담당하였어요. 열아홉살 나이에 하숙하면서 국민학교 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 서울 재동국민학교로 전근했지요. 경기여고보를 졸업한 후 부모님들께서는 결혼을 강권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계속하려고 유학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머님께서 사범학교에 응시하라고 하셔서 결국 국민학교 교사까지 된 셈이에요. 해방될 때까지 재동국민학교에 봉직했어요.

선생님 서울대 사범대에는 어떤 계기로 입학하셨습니까?

서울대 3학년때 美유학

해방후 서울대에서 여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경기여고 은사님이신 손정규 선생님(당시 서울대 여학생처장)께서 입학권을 유하셨고 사범학교에 1년 다닌 것을 인정받아 2학년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23세였지요. 그때는 가정학과밖에 없어서 이 학과에 입학하였는데 가정학과 2학년 재학생이

리야 고작 5명, 후배는 15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서울대로서는 2회지요. 동급생 5명 모두가 경기여고 출신이었어요. 朱貞一(전 숙대 가정대학장), 李惠秀(전 서울대 가정대학장), 權眞淑(전 이화여대 강사), 玄順英(전 서울여대, 서울사대 교수) 모두 자랑스러운 동창생들이며 현재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전에 주정일, 권진숙이 미국 유학 떠났고 저도 졸업 1년전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실제로는 이해수와 현순영만이 서울대를 졸업한 셈입니다.

당시 장리욱 총장께서 유학을 갔다면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셨고 더욱이 미국에서 두 종류의 장학금을 얻어 앞의 두 친구를 보냈는데 저는 이춘

호박사(서울대 총장)께서 당신이 다니셨던 학교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갔어요. 오하이오의 웨슬리안(Ohio Wesleyan)대에서 3년, 오클라호마(Oklahoma)주립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어요. 웨슬리안대학 동문으로는 김활란 박사(전 이대총장)가 선배이시고 김옥길박사(전 이대총장)가 저보다 1년 뒤에 유학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에서 78년에 인간문화학에 관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 유학가서 가장 어려웠던 과정 중의 하나가 '화학'과 '화학실험' 과목을 수업받는 일이었어요. 가정학이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므로 필수적으로 화학실험까지 수강해야 되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실험을 해야되므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선생님께서도 한국인 기초식품군(Basic Food Group)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식생활개선을 위한 계몽, 그리고 식단작성의 요령,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셨는데요.

非科學的 食생활개선 앞장

사실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따라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면에서 영양학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식습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고 단체급식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과학적인 관리요령, 효율적인 급식체제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계속하였어요.

영양학을 비롯해서 식생활관리, 조리학 등을 연구하였고 식생활지도, 식생

할 계몽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하였던 기억들이 새삼스레 떠오르는군요.

서울대 가정대 교수, 학장을 역임하셨고 대한가정학회 회장을 거쳐 고문으로 계십니다. 특히 제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지요?

서울대서 25년...국회의원도

서울대에는 53년부터 78년까지 봉직하였습니다. 47년에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되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다시 조직했지요. 78년에 국회의원(10대)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을 입안하는데 여성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깨닫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식량관련 정책을 나름대로 뜻을 모았지요.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여성운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67년부터 80년까지 여성저축생활중앙회장을 지낸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계부 적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던게 바로 이 때였어요. 일종의 여성의식개혁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후 여성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습관이 확산되었고 가정에서 근절절약하는 생활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고 믿어요.

선생님께서서는 경기여고 총동창회장을 오래 하셨고 장학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10년...장학금 2억

68년부터 75년까지 총동창회장을

맡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학회를 조직했지요. 경기여고에 화재가 일어난 다음 모교를 돕는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학교안에 동창회 사무실까지 마련하였지요. 당시는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장학기금을 모으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더군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면서 다음에 너희들이 갚는 셈치고 경기여고 장학회를 육성하라고 당부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장학금 모금운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었다 해도 경기여고정신은 계속 살아있다고 자부합니다. 개교 80주년 사업회장을 맡아 모금해서 학교에 기념탑도 세우고 '80년사'도 발간하였어요.

선생님 가족이야기를 들려 주시지요.

형제들과 이웃서 오손도손

43세에 결혼하였어요. 남편(朴煥熙, 1988년 80세로 작고)은 동양화재 감사를 지내셨고 무역업을 했어요. 친정 형제 9남매중 6명이 생존해 있는데 모두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이들만 넷이 있는데 둘째 아들 내외,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았으나 이 아들 가족이 작년에 뉴질랜드로 이민갔어요.

장남 朴誠-(55·제일은행 차장), 차남 忠-(53·뉴질랜드 이민), 3남 孝-(50·김포고교 교사), 4남 昌-(48·롯데식품 근무)과 손자 및 손녀가 세명씩 있어요. 요새는 방송통신대 심의 평가교수로 주 2회씩 나가고 국제 존타클럽(관리직 여성단체)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집안행사도 많아

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간직하고 실천하시는 생활과 인생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한 삶으로 평생의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나 늙어가는 공부, 죽음을 맞는 공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늙음을 외면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가다듬는 기쁨,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늙으면 늙은 척 해야 하는데 젊은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뇌에 입력시키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릴 것은 가볍게 잊어버리는 슬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미련없이 잊어버려라',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뚝뚝하게 늙음을 맞고 늙음에서 벗어나려고 추한 꼴을 보이지 말라' 이들 모두가 쉬운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마음가짐이겠지요.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첫째로 진실해야 한다, 둘째로 공든 탑이 무너지라, 끈기있게 열심히 해야 한다, 셋째로 편안히 살자 이러한 믿음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 가정학회의 원로로서 선생님께서 닦아오신 학문적 업적, 그리고 여성운동의 선각자중 한분으로서의 선생님의 일생은 후학들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단체급식, 식생활관리학, 조리학 등 선생님의 저서들도 계속 그 빛을 더해 갈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복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